



**2021년 / 10월 2주차**

### **연구원 사무국 내부 수선 및 재배치 공사(9월 13일~10월 15일)**

우리 연구원이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으로 이전한 지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함께 공간을 이용하다 지난 8월부터 연구원 전용으로 공간을 확보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정리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여유롭게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이번 공사를 통해 연구원 내 사무국 옆 공간을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무용 가구와 사무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한 공간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원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제한된 조건이지만 최대한 계획된 일정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회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경성 감옥 제 1호 사형 집행 - 1908. 10. 21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지금은 서대문독립공원으로 불리지만 1908년부터 1912년까지는 경성감옥으로 불렸다. 쌓여있는 벽돌만큼이나 배어 있는 사연도 공간의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다.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불린 것은 1923년부터였다. 해방 후 서울형무소로 불리다 5.16 쿠데타 뒤에는 서울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1967년부터 서대문 구치소로 불렸다. 구치소가 1987년 6월 항쟁이 끝난 뒤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며 그 수명을 다했다.

대한제국 말기에 지어져 일제 강점기 때의 독립 운동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정치적 격변기와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여러 주요 사건과 연관된 장소가 되었다. 80년간 운영되며 일제강점기 치열한 항일투쟁을 벌였던 독립투사들과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인사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곳이다.

80년 간 숱한 이들이 갖가지 사연으로 목숨을 놓은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처음 사형을 당한 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6가 69번지(동대문)에서 신설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동 749번지(청량리 로터리) 구간 폭 35m, 길이 3,300m의 6차선 도로를 부르는 이름이 왕산로(旺山路)다. 서울의 을지로나 충무로처럼 왕산로 역시 사람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명이다.

**“우리 이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盡忠竭力) 용맹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과 같은 국욕(國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본시 고관이란 제 몸만 알고 나라는 모르는 법이지만, 그는 관계(官界) 제일의 충신이라 할 것이다.”**

그는 안중근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평가를 받을 만큼 끈고 바른 이였다. 경북 선산군 구미면(현재 구미시)에서 태어난 뒤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살해당하자 의병을 일으켰었고 의병을 해산한 후 평리원장(지금의 대법원장 격)에 임명되지만 일제의 침탈이 노골화되자 다시 의병을 조직했다.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된 전국적인 의병 조직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을 맡은 것이 바로 그였다. 해산당한 대한 제국의 군인 3,000여명을 포함에 1만 여명에 이르는 연합부대는 총대장에 이인영, 군사장에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1908년 서울의 각국 공관에 의병부대를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격문을 보내고 군사장 허위가 이끄는 3백 명의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해 일본군과 혈전을 벌였으나 후속부대의 지원이 없어 퇴각하고 말았다. 이때 부친의 부음(訃音)을 받은 총대장 이인영은 지휘권을 군사장이었던 그에게 맡기고 귀향해버렸다.

최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무너진 연합부대는 패퇴하고 만다. 이완용은 그에게 관찰사 자리를 제안하며 회유했지만 계속해서 의병규합에 매진하던 가운데 1908년 6월 11일 일본군에게 체포당하고 만다. 당시 일본군 헌병사령관이던 아카시가 직접 심문에 나섰는데 그의 기개에 놀려 후에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청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토는 거절했다.

결국 그는 1908년 10월 21일 형장에 서게 되었다. 사형 집행에 앞서 일본 승려가 독경하려 하자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 갈 것이요,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얻으랴" 라고 일갈하며 이를 물리쳤다. 또 검사가 그에게 사후 시신을 거둘 이가 있느냐고 묻자, "죽은 뒤의 염시(斂屍)를 어찌 과념하겠느냐. 옥중에서 썩어도 무방하니 속히 형을 집행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113년 전 오늘 경성감옥 교수대에 "차마 왜적과 함께 살 수 없어 나섰다"고 외친 선비 왕산 허위가 쉰 넷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